

#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 Perception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about Home Economics and Food and Nutrition Sec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홍은정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백희영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Jeong Ho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Hee-Young Paik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Home Economics course, especially in the area of Food and Nutrition. For this purpose, an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482 students in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 The questionnaire contained questions about the general concept of Home Economics course, and general concept, and the degree of the perceived need of Food and Nutrition part of the course. The data of analysis a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deviation, chi-square, one-way ANOVA, t-test, and Scheff-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show a tendency to perceive Home Economics education is 「related with ethics of human life for both sexes」, which is stronger in girls than in boys.

\* 본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가정 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Boys had a tendency to perceive that Home Economics is related with 「home making skills in food, clothing, housings, etc.」 or 「for girls and women only」, which is weaker in girls.

Second, students also show a tendency to perceive Home Economics is important and to agree that Home Economics must be taught to both sexes. This tendency is stronger in girls than in boys.

Third, students show a tendency to perceive that Food and Nutrition part is related with 「meeting problems in food choices and nutrition」, which is stronger in girls than in boys.

Fourth, girls are more interested in Food and Nutrition part than the other parts and likely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Food and Nutrition part of their 1st grade, and became to pay attention to their eating patterns. These tendencies are weaker in boys.

## 1. 문제제기

가정과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설치된 교과목의 하나로서, 가정 생활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육성시켜주는 교과이다(日本家庭科教育法研究會, 1977). 또, 가정과는 실천적, 체험적 학습을 중시하여 가정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한다. 가정과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 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이인희·이옥임, 1995). 가정 내의 역할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전통적 사회구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확대되고 복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녀 모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 생활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가정과 교육이 여성을 위한 교양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남녀 다 같이 생활인으로서 가정 생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중학교의 가정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등에 관한 실천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아울러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 생활을 보다 잘하려는 실천적인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교육개발원 해외정보자료IEI 86-1). 또한, 중학교의 가정과는 국민학교에서의 실과 교육을 바탕으로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로서, 가정 생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과 가정 생활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원만한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가정 일의 분담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과이다(이인희·이옥임, 1995). 이는 가정 경영의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 해결과 생활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고등학교 가정과와는 그 범위와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정과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나 학생의 관심도 및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는 가정학 내용 전체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나 관심도(고현숙·김기남, 1989; 김은주, 1984),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유상희, 1992), 의생활 내용에 관한 학습 관심도(강명희·정영숙, 1990), 가정교과 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신현자·김기남, 1991)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6차 교육과정기의 가정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중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교육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6차 교육과정기의 필수교과로서 가정과목을 이수한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 1. 중학교 가정과 교육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감안할 때, 교육의 전개 과정은 일반 교육·탐색 교육·전문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곽병선 외 4인, 1988). 이러한 진행 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과목의 성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일반 교육은 누구나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 학생에게는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그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육에 충실해야 할 단계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가정과 교육내용도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서 남녀 학생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육의 목적은 인간 생활의 기본인 가정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윤인경, 1987). 가정과 교육은 특정한 성별,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에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교과로서, 민주적인 가정의 경영으로 민주적인 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하기에 결함이 없는 교육이다(온성숙·이전숙, 1992). 가정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며, 가정 생활 그 자체를 교재로 하는 것이고 인간 존중과 생활 중심의 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가정과 교육은 일상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전체와 부분을 형성하는 지식과 봉사의 영역이다. 예컨대, 가정과 교육은 단순히 병을 치료한다기 보다는 위생과 영양을 향상시키고, 탈선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동 발달과 결혼 가족 관계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개인적인 파산의 사례를 다루기보다는 금전의 관리나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과 교육을 가정 생활에 필요한 복잡하

고 어려운 의사 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정과는 개인들이 그들의 가정과 가정 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성을 응용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East, 1980; 장영오, 1993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가정과 교육의 특징들을 보면, 가정과 교육은 인간 생활의 행복과 가정 생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질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육은 학생의 생활에까지 연장되어 실천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자신이 경영해야 하는 가정 생활에까지 활용되어 생활화됨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2.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흥미도, 활용 정도, 필요도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식생활 교육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순애(199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5차 교육과정 시행 초기에 가정과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는 농촌일수록, 성별로는 여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기술·가정 과목을 배우는 남학생들의 인식이 기술 과목을 배우는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상희(199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과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첫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 활용 영역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지 않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과목을 가정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전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주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농촌 지역이 높고, 소비생활과 자원 활용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서울 지역이 높다. 다섯째, 중학교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이수 과목에 따라 다르다.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 활용 영역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기술 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보다 높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과 농촌 지역의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가정 과목을 접해 본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온성숙·이전숙(1992)은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 과목을 이수한 238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의 모든 항목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의 영양, 건강과 식생활, 식품과 위생, 음식 만들기, 식품과 조리 등의 순서로 실생활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라북도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한 최성희(1980)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단원은 식생활 단원으로서 대부분이 식생활 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학습 내용의 활용도는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과 영역별 필요도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이금남(1993)의 연구 결과, 가정 과목 이수에 대한 필요성은 남학생 73.7%, 여학생 89.9%를 나타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은 정신적인 측면, 여학생은 기능적 측면을 가정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가정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남학생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53.8%), 여학생은 「가정 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능 습득」(49.5%)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관련 선행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고찰해 보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각 영역에 대한 필요도 및 흥미도와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본 것들이다. 그 대상들은 남녀 양성의 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임애용, 1993)이거나 중학교 남학생(온성숙·이전숙, 1992)과 남녀학생(유상희, 1992), 남녀 중고등학생(김영, 1985), 남녀 학생과 학부모(이금남, 1993)등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남녀 학생들의 가정과목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학생들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1-1. 학생들은 가정과목이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1-2. 학생들은 가정과목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1-3. 학생들은 가정과목의 남녀 공통 이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2-1. 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이 무엇을 배우는 단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2-2. 학생들은 타단원에 비하여 식생활 단원에 어느 정도 흥미를 느꼈는가?

2-3. 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이 얼마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가?

2-4. 학생들은 자신의 식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조사 도구의 작성

학생들을 위한 조사 도구의 첫부분은 먼저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을 묻는 4개의 문항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가정 과목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항을 유상희(1994)의 논문에서 근거하여 5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고, 가정 과목의 중요성과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인식을 5단계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녀 공수에 대하여 강하게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서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생활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재미가 있었는지, 또한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조사 도구의 둘째 부분은 남녀학생 집단의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의 검토와 검증을 기초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다항목 척도의 신뢰도 분석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 내적 일치도 방법을 적용하여 Cronbach  $\alpha$  계수는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 2)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서울시 남중 100명, 여중 100명, 남녀 공학 150명; 전주시 남녀 공학 100명; 전라북도 군·면 단위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60명 등 총 510명의 2학년 학생을 임의로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는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가정과 담당교사에게 준 후,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조사는 1996년 3월 26일에서 4월 2일까지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489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7부가 부실기재되어, 자료 분석에는 총 482부가 사용되었다.

### 3) 자료의 분석 절차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과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제6차 교육과정의 식생활 단원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 인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 평균, 표준편차(SD)를 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할 분석에 의한 chi-square ( $\chi^2$ )을 실시하였다.

## 3.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학생 집단(N=482)은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으로서 평균 연령은  $14.8 \pm 0.4$ 세이고, 남학생이 56.6%, 여학생이 43.4%이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68.3%, 지방도시(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20.3%, 군·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학생은 11.4%이다. 학교 형태별로는 남중은 19.3%이고, 여중은 18.0%, 남녀공학은 62.6%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는 27.6%가 대졸이상, 48.8%가 고졸, 13.1%가 중졸, 10.6%는 국졸이하이고, 어머니는 12.4%가 대졸이상, 50.0%가 고졸, 23.0%가 중졸, 14.5%가 국졸이하로서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의 가계 월수입의 분포를 보면, 200만원 이상이 2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7.4%,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31.1%,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1.0%, 70만원 미만은 7.5%로서 1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규모는 학생을 포함하여, 3인 이하가 10.4%, 4-5인 가정은 74.6%, 6인 이상은 14.9%로서 규모가 4-5인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 가정 과목의 중요도, 가정 과목의 남녀 공통 이수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결과는 총 빈도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chi^2$  검증을 하였다.

가정 과목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표 1〉)은 「건강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에 절반이상인 52.1%가 응답하여, 조사 대상 학생들은 가정 과목을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7.9%), 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11.0%), 「여성을 위한 교양과 지식」(11.4%),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17.6%)을 배우는 과목이라는 인식보다 인간교육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표 2〉)은 「매우 중요하다」, 와 「중요한 편이다」에 57.5%가 응답하여, 3.61의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의 58.6%, 여학생의 56.0%가 위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이는 유상희(1992)의 연구에서 각각 81.7%, 81.1%를 보인 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낮아진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과의 수업시수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을 묻는 문항(〈표 3〉)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에 각각 38.8%, 43.4%가 응답하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는 각각 3.7%와 3.3%가 반응하여 대다수의 중학교 학생들은 가정과목을 남녀 모두가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에서, 수업시수의 감축에 따라 가정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아진 반면, 가정 과목을 남녀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은,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학생들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이 남녀 공통 이수 이후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중학교 가정 과목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 단원의 실제 생활에서의 도움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자신의 식생활 단원

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4〉)에서 「식생활 관련 영양 문제, 식품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에 50.8%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식단 짜기, 식사 준비와 같은 실질적인 식생활 기능을 배운다」(28.6%),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 영양의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을 실천 과학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생활 단원이 가정 과목의 다른 단원에 비해 재미있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5〉)에 대하여 「매우 재미있었다」와 「재미있는 편이었다」에 35.3%, 38.4%가 응답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97의 흥미도를 보였다. 이는 최성희(198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6〉)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된 편이다」에 19.1%, 41.5%가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현행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나서 실생활에 도움을 받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3.64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7〉)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관심이 생긴 편이다」에 각각 14.1%, 24.7%가 응답하였고,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31.3%)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는 3.10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와 실제생활에서의 도움정도가 각각 3.97, 3.64의 점수를 나타낸 것에 비교해볼 때, 전체 학생의 38.8%만이 자신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결과는 제 6차 식생활 단원의 교육효과가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먼저,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서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에 대하여 남학생 42.1%, 여학생 65.1%가 응답하여(〈표 1〉), 여학생이 가정 과목을 인간 교육적 측면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항목 내용에 대하여 김순애(1990)의 연구에서 남학생 23.6%, 여학생 29.4%, 유상희(1992)의 연구에서 남학생 23.9%, 여학생 41.7%가 응답한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볼 때,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이 조리, 세탁, 육아 등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것에서 건전한 생활 이념이나 올바른 인간 형성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가정과가 여성을 위한 교양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12.8%로서 유상희(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23.0%보다는 낮아졌다. 이는 가정과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의 변화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하여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학생들이 여전히 가정과와 여성 교육을 별개로 보지 않는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의 가정 과목이 중점을 두었던 조리, 세탁, 육아 등과 같은 가사 실무 기능으로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을 인식하는 경우는 남학생 13.9%, 여학생 7.2%로서, 오늘날의 가정과 교육 내용이 기술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가정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표 2〉)은 「매우 중요하다」, 와 「중요한 편이다」에 남학생의 58.6%, 여학생의 56.0%가 응답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그저 그렇다」에 대답한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중요한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을 묻는 문항(〈표 3〉)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에 남학생 73.6%, 여학생 93.3%가 응답하여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은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11.7%가 응답하여 가정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점수에 있어서도 남학생은 3.80, 여학생은 4.50을 나타내어 여학생이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에 대하여 강한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 남학생은 이에 미치지 않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이 가정과목을 여학생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남녀가 다같이 가정과목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부정적임을 나타내어 남녀 평등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와, 가정 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여학생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남학생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남학생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도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는 꼭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4〉)에서 「식생활 관련 영양 문제, 식품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에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6.0%가 응답하여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식단 짜기, 식사 준비와 같은 실질적인 식생활 기능을 배운다」에 남학생은 32.2%, 여학생은 23.5%,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 영양의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에 남학생 20.9%, 여학생 20.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식생활 단원이 가정 과목의 다른 단원에 비해 재미있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5〉)에 대하여 남학생의 68.9%, 여학생의 79.9%가 「매우 재미있었다」와 「그런 편이다」에 응답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높았다( $P < 0.05$ ).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6〉)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된 편이다」에 각각 남학생은 17.6%, 39.6%, 여학생은 21.1%, 44.0%가 응답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이는 평균점수의 차이에서도 유의하게( $P < 0.01$ ) 나타났다. 남학생의 실생활에의 도움정도 인식이 50%이상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온성숙·이전숙(1992)의 연구에서 가정과를 이수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표 7〉)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관심이 생긴 편이다」에 남학생이 37.7%, 여학생은 40.2%가 응답하여  $P < 0.01$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남학생은 관심의 변화정도 점수가 2.99로 중간점수를 약간 밑돌았고 여학생은 3.23으로서, 두 집단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둘째로 학생들은 또한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도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나타냈는데, 먼저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1〉)에 있어서는 군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정 과목을 「건전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에 대하여 배우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P < 0.05$  수준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서울과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응답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가정 과목을 인간 교육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표 2〉)에서는 학교 소재지 별로 분포의 차이는 없었으나, 중요도 점수에서는 서울(지방 도시)〈군읍면의 순서를 보였다〉( $P < 0.05$ ),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 단원의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에서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분포와 평균 점수에 있어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소재지에 따른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표 8〉과 같다. 남학생은 현행 1학년 과정 식생활 단원 중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과 '기초 식품군'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서만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P < 0.05$ ). 한편, 여학생은 가정 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생활 단원의 실제 생

활에의 도움 정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정도 등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1학년 과정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에서도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 '기초 식품군',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 문제'에 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타지역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타지역의 여학생들에 비해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로, 학교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1〉)에서는 남중(남녀 공학)〈여중의 순서로 「건전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에의 응답률이 높았다〉( $P < 0.001$ ). 또한 남중의 학생들이 여중이나 남녀 공학의 학생들에 비해,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와, 「가정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의 습득」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 과목을 이론적인 측면이나, 기능 중심의 측면보다는 인간 교육적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표 2〉)에 대해서도 학교 형태에 따라 분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중요도 점수에서도 남중(3.24)〈여중(3.52)〉〈남녀 공학(3.75)〉의 순서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학교 형태에 따라 점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표 9〉), 남중의 남학생(3.24)보다 남녀 공학의 남학생들(3.67)이 인식한 중요도가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게 높았고, 여학생도 여중의 여학생(3.52)보다 남녀 공학의 여학생들(3.86)이 중요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이는 가정 과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표 3〉)에 대해서는 여중의 학생들(4.51)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 남녀 공학(4.17), 남중(3.53)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표 9〉을 보면, 남학생은 남녀 공학의 남학생들(3.94)이 남중의 학생들(3.53)보다 더 필요하다( $P < 0.01$ )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학교 형태에 관계없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남중에서보다 남녀 공학에서 여학생과 같은 가정과 교사의 수업을 받았을 때, 가정 과목의 이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4〉)에서 학생들은 학교 형태에 따라  $P<0.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중의 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식단 짜기, 식사 준비와 같은 가정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여중과 남녀 공학의 학생들은 「식생활에 관련된 영양 문제, 식품 선택 문제 등의 해결 방법」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남중의 남학생들이 〈표 1〉과 비교해 볼 때,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을 기능 중심의 내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중이나 남녀 공학의 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식생활에 관련되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남중의 학생들의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이 가정과목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표 5〉)는 학교 형태에 따른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표 6〉)에 대해서는 남중의 학생들(3.30)이 여중 학생들(3.68)이나, 남녀 공학의 학생들(3.73)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0.01$ ). 또한 남중의 남학생들은 남녀 공학의 남학생(3.64)보다 낮게 인식하여( $P<0.05$ ),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도 학교 형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관심의 변화(〈표 7〉)에 대해서는 남중의 학생과 남녀 공학의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 여학생은 학교 형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남학생은 남중(2.66)보다 남녀 공학(3.17)일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P<0.01$ , 〈표 9〉).

남학생들이 남학교에서보다 남녀 공학의 학교에서 가정과를 이수했을 때,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더 많이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 것은 남학

교의 가정과 교사보다 남녀 공학의 가정과 교사의 교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표 1〉)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과목의 중요성(〈표 2〉)에 대해서는 Scheffe-test 결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인 집단(중졸-3.79, 국졸-3.80)이 대졸 이상인 집단(3.22)보다 인식도가 높았다.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표 3〉)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일 때, 중졸인 경우보다 의미 있게 낮았다( $P<0.01$ ). 이는 유상희(1992)의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 가정과 교육의 내용이 조리, 세탁, 육아 등 가사 사무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과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학생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하여 가정 과목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표 4〉)에 대해서는 아버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실질적인 식생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아버지  $P<0.01$ ; 어머니  $P<0.05$ ). 이는 부모 세대의 가정과 식생활 단원의 내용이 조리에 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 단원의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인식 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별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제로 가정 과목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의 직접 경험에 따라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학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으로 높을 수록 가정 과목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여학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가정 과목과 가정 생활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월 평균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남학생은 가정생활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표 11), 여학생은 다만, 소득 수준이 7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인식하였다.

여섯째로, 가족의 규모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 필요성(표 3, 표 12)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의 규모가 3인 이하인 경우와 6인 이상인 경우에 4-5인 규모의 가족에 속한 학생보다 더 강하게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 < 0.05$ ). 또한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표 6)에 대해서 가족의 규모가 커질 수록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P < 0.01$ ). 즉, 가족의 규모가 클 수록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의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 과목과 현행 식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교 남녀 학생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남녀 공수를 위한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단원의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제6차 교육과정의 남녀 공통 이수로 인하여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가정 과목의 학습 내용을 「건강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정 과목은 중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한다. 또, 가정 과목의 남녀 공수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또, 식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식생활 관련 영양 문제나 식품 선택 시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그리고,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 단원의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식생활에의 관심 변화 정도 등도 남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반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가정 과목을 '가사 실무 기능'을 배운다거나, 여성 교육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고, 식생활 단원을 식생활 기능 습득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2.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먼단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정 과목을 「건강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을 배우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3. 학교 형태에 따라서는 남녀 공학에 다니는 남녀 학생이 남학교의 남학생과 여학교의 여학생들보다 가정 과목을 「건강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을 배우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가정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며, 남녀 공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식생활 단원에 대해서도 남녀 공학의 학생들이 「식생활 관련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흥미도 및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식생활에의 관심 변화 정도가 높았다.

4. 학생들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가정 과목에 대한 인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학생들은 가족 규모가 클수록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인식하여, 가족원이 많으면 실생활에 식생활 교육 내용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참 고 문 헌】

- 1) 강명희·정영숙(1990),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 여중고생이 학습관심도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1).
- 2) 고현숙·김기남(1989), 「여고생의 가정 교과에 대

- 한 인식 및 학습 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권 1호.
- 3) 광병선 외 4인(1988), 교과교육원리, 갑을출판사.
  - 4) 김광옥(1986),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성과에 관한 고찰: 중학교 의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명신(1990),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김범중(1994), SPSS/PC+ 사용법과 통계분석기법 해설, 학연사.
  - 7) 김순애(1990),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영동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영(1985),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남녀 공통이수를 위한 방향모색」,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9) 김은주(1984),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0) 성화경 외 5인(1994), 중학교 가정 1, 중앙교육진흥.
  - 11) 손경희 외 1인(1986), 「미래의 식생활 문화」,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 12) 손원교(1988),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교재연구」,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논집 26.
  - 13) 신현자·김기남(1991), 「가정 교과 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 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권 1호.
  - 14) 온성숙·이전숙(1992), 「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권 1호.
  - 15) 유상희(1992),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6) 유영주·이정연(1993),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 17) 윤인경(1987), 「중학교 남녀 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 대한가정학회지 25권 2호.
  - 18) 윤인경 외 6인(1994) 중학교 가정 1, 교학연구사.
  - 19) 이금남(1993),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과영역별 필요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기춘 외 4인(1994), 중학교 가정 1, (주)현대문학.
  - 21) \_\_\_\_\_ (1994), 중학교 가정 2, (주)현대문학.
  - 22) \_\_\_\_\_ (1994), 중학교 가정 3, (주)현대문학.
  - 23) 이기훈 외 2인(1994),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 과정 해설, 교육부.
  - 24) 이순원 외 4인(1994), 중학교 가정 1, 동아출판사.
  - 25) \_\_\_\_\_ (1994), 중학교 가정 2, 동아출판사.
  - 26) 이연숙(1977), 「지적 영역의 수준에서 본 학습의욕 경향에 관한 연구-여고 가정 과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권 1호.
  - 27) \_\_\_\_\_ (1993) 가정과 교수법-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28) 이은정·신상옥(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권 1호.
  - 29) 이은해·강해원(1983), 「가정학 교과 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탐안(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 30) 이인희·이옥임(1995), 가정과 교수법, 수확사.
  - 31) 이 정(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이현옥(1987),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대한가정학회지 25권 4호.
  - 33) 日本家庭科教育法研究会(1977), 新編 家庭科 教育法.
  - 34) 임애용(1993),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35) 장명옥(1982), 가정학원론, 교문사.
  - 36) 장영오(1993),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7) 조복희(1995), 가정학 연구방법론, 교문사.
  - 38) 조영일(1977),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연구」, 삼육대학교논문집 9.

- 39) 차미경(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0) 최성희(1980), 「전라북도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 41) 최영희 외 5인(1994) 중학교 가정 1, (주)지학사.
- 42) 한국교육개발원 해외정보자료IEI 86-1, 일본 중학교 기술·가정과 지도서.
- 43) 홍두승(1992), 제2판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44) 황은선(1992), 「가정과 식생활 단위 학습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학습목표 성취도와 흥미도 및 실천정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5) 캘리포니아주교육국(1984), 「CHOOSE WELL BE WELL: A Curriculum Guide for Junior High School. California U.S.A..」
- 46) East(1980)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 47) Denise Bowen 외 15인(1981), Home Economics, Hutchinson Education, London.

〈표 1〉 '가정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에 대한 응답

반응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	여성을 위한 교양과 지식	건강한 생활 이념과 인간 형성	계	
변인(N)	빈도	N(%)	N(%)	N(%)	N(%)	N(%)	$\chi^2*$	
성별	남(273)	29(10.6)	38(13.9)	56(20.5)	35(12.8)	115(42.1)	26.91***	
	여(209)	9(4.3)	15(7.2)	29(13.9)	20(9.6)	136(65.1)		
학교 소재지	서울(329)	31(9.4)	35(10.6)	63(19.1)	38(11.6)	162(49.2)	17.10*	
	지방 도시(98)	6(6.1)	15(15.3)	15(15.3)	14(14.3)	48(49.0)		
	군읍면(55)	1(1.8)	3(5.5)	7(12.7)	3(5.5)	41(74.5)		
학교 형태	남중(93)	14(15.1)	13(14.1)	17(18.3)	17(18.3)	32(34.4)	26.45***	
	여중(87)	6(6.9)	5(5.7)	10(11.5)	9(10.3)	57(65.5)		
	남녀공학(302)	18(6.0)	35(11.6)	58(19.2)	29(9.6)	162(53.6)		
		남(180)	15(8.3)	25(13.9)	39(21.7)	18(10.0)		83(46.1)
	여(122)	3(2.5)	10(8.2)	19(15.6)	11(9.0)	79(64.8)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13(9.8)	13(9.8)	21(15.8)	16(12.0)	70(52.6)	11.06
		고졸(235)	19(8.1)	26(11.1)	48(20.4)	29(12.3)	113(48.1)	
		중졸(63)	5(7.9)	5(7.9)	10(15.9)	5(7.9)	38(60.3)	
		국졸(51)	1(2.0)	9(17.6)	6(11.8)	5(9.8)	30(58.8)	
	어머니	대졸(60)	7(11.7)	7(11.7)	6(10.0)	11(18.3)	29(48.3)	13.66
	고졸(241)	23(9.5)	25(10.4)	47(19.5)	27(11.2)	119(49.4)		
	중졸(111)	5(4.5)	14(12.6)	22(19.8)	11(9.9)	59(53.2)		
	국졸(70)	3(4.3)	7(10.0)	10(14.3)	6(8.6)	44(62.9)		
월가 소득	200만원이상(111)	9(8.1)	11(9.9)	20(18.0)	14(12.6)	57(51.4)	8.07	
	150-200(132)	11(8.3)	15(11.4)	26(19.7)	14(10.6)	66(50.0)		
	100-150(150)	10(6.7)	17(11.3)	31(20.7)	16(10.7)	76(50.7)		
	70-100(53)	6(11.3)	6(11.3)	5(9.4)	7(13.2)	29(54.7)		
	70만원 미만(36)	2(5.6)	4(11.1)	3(8.3)	4(11.1)	23(63.9)		
가족 규모	3인 이하(50)	6(12.0)	2(4.0)	13(26.0)	2(4.0)	27(54.0)	9.33	
	4-5인(360)	28(7.8)	43(11.9)	59(16.4)	43(11.9)	187(51.9)		
	6인 이상(72)	4(5.6)	8(11.1)	13(18.1)	10(13.9)	37(51.4)		
총	계(482)	38(7.9)	53(11.0)	85(17.6)	55(11.4)	251(52.1)		

※)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 '가정 과목은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

반응(점수)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chi^2$	계		
		(5)	(4)	(3)	(2)	(1)				
변인(N)		빈도	N(%)	N(%)	N(%)	N(%)	N(%)	M(S.D)	F또는t <sup>2)</sup>	
성별	남(273)	41(15.0)	119(43.6)	69(25.3)	30(11.0)	14(5.1)	25.23***	3.52(1.04)	-2.19	
	여(209)	48(23.0)	69(33.0)	77(36.8)	15(7.2)	-		3.72(0.9)		
학교 소재지	서울(329)	56(17.0)	123(37.4)	105(31.9)	34(10.3)	11(3.3)	8.24	3.54(1.00)	3.14+	
	지방도시(98)	21(21.4)	37(37.8)	29(29.6)	8(8.2)	3(3.1)		3.66(1.00)		
	군읍면(55)	12(21.8)	28(50.9)	12(21.8)	3(5.5)	-		3.89(0.81)		
학교 형태	남중(93)	14(15.1)	29(31.2)	26(28.0)	13(14.0)	11(11.8)	47.94***	3.24(1.22)	10.44+++	
	여중(87)	14(16.1)	26(29.9)	38(43.7)	9(10.3)	-		3.52(0.89) <sub>b</sub>		
	남녀공학(302)	61(20.2)	133(44.0)	82(27.2)	23(7.6)	3(1.0)		3.75(0.90) <sub>b</sub>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20(15.0)	47(35.3)	42(31.6)	17(12.8)	7(5.3)	11.35	3.42(1.06) <sub>a</sub>	2.94+
		고졸(235)	46(19.6)	92(39.1)	71(30.2)	20(8.5)	6(2.6)		3.65(0.97) <sub>b</sub>	
		중졸(63)	15(23.8)	26(41.3)	19(30.2)	3(4.8)	-		3.84(0.85) <sub>b</sub>	
		국졸(51)	8(15.7)	23(45.1)	14(27.5)	5(9.8)	1(2.0)		3.63(0.94) <sub>b</sub>	
	어머니	대졸(60)	7(11.7)	20(33.3)	17(28.3)	11(18.3)	5(8.3)	23.05*	3.22(1.14) <sub>a</sub>	5.66+++
		고졸(241)	40(16.6)	92(38.2)	79(32.8)	24(10.0)	6(2.5)		3.56(0.96) <sub>b</sub>	
		중졸(111)	28(25.2)	43(38.7)	31(27.9)	7(6.3)	2(1.8)		3.79(0.95) <sub>b</sub>	
		국졸(70)	14(20.0)	33(47.1)	19(27.1)	3(4.3)	1(1.4)		3.80(0.86) <sub>b</sub>	
월가계 소득	200만원이상(111)	22(19.8)	41(36.9)	29(26.1)	12(10.8)	7(6.3)	16.50	3.53(1.12)	0.86	
	150-200(132)	24(18.2)	44(33.3)	47(35.6)	14(10.6)	3(2.3)		3.55(0.98)		
	100-150(150)	23(15.3)	68(45.3)	45(30.0)	12(8.0)	2(1.3)		3.65(0.88)		
	70-100(53)	9(17.0)	22(41.5)	17(32.1)	4(7.5)	1(1.9)		3.64(0.92)		
	70만원 미만(36)	11(30.6)	13(36.1)	8(22.2)	3(8.3)	1(2.8)		3.83(1.06)		
가족 규모	3인 이하(50)	6(12.0)	29(58.0)	12(24.0)	2(4.0)	1(2.0)	14.94	3.74(0.80)	0.96	
	4-5인(360)	64(17.8)	135(37.5)	116(32.2)	33(9.2)	12(3.3)		3.57(0.99)		
	6인 이상(72)	19(26.4)	24(33.3)	18(25.0)	10(13.9)	1(1.4)		3.69(1.06)		
총 계(482)		89(18.5)	188(39.0)	146(30.3)	45(9.3)	14(2.9)		3.61(0.99)		

1)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2) + 는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Scheffé-test 결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집단들은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3〉 '가정과목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반응(점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chi^2$	계		
		(5)	(4)	(3)	(2)	(1)				
변인(N)		빈도					M(S.D)	F 또는 t <sup>2)</sup>		
		N(%)	N(%)	N(%)	N(%)	N(%)				
성별	남(273)	65(23.8)	136(49.8)	40(14.7)	17(6.2)	15(5.5)	70.66***	3.80(1.05)	-8.91+++	
	여(209)	122(58.4)	73(34.9)	12(5.7)	1(0.5)	1(0.5)		4.50(0.67)		
학교 소재지	서울(329)	127(38.6)	139(42.2)	38(11.6)	12(3.6)	13(4.0)	8.47	4.08(1.00)	0.53	
	지방 도시(98)	39(39.8)	41(41.8)	11(11.2)	6(6.1)	1(1.0)		4.13(0.92)		
	군읍면(55)	21(38.2)	29(52.7)	3(5.5)	-	2(3.6)		4.22(0.85)		
학교 형태	남중(93)	18(19.4)	43(46.2)	13(14.0)	8(8.6)	11(11.8)	56.83***	3.53(1.24)	27.49+++	
	여중(87)	51(58.6)	29(33.3)	7(8.0)	-	-		4.51(0.64) <sub>a</sub>		
	남녀공학(302)	118(39.1)	137(45.4)	32(10.6)	10(3.3)	5(1.7)		4.17(0.87) <sub>b</sub>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42(31.6)	63(47.4)	15(11.3)	6(4.5)	7(5.3)	18.91	3.95(1.04) <sub>a</sub>	4.42++
		고졸(235)	93(39.6)	94(40.0)	29(12.3)	11(4.7)	8(3.4)		4.08(1.01) <sub>a</sub>	
		중졸(63)	34(54.0)	26(41.3)	2(3.2)	1(1.6)	-		4.48(0.64) <sub>b</sub>	
		국졸(51)	18(35.3)	26(51.0)	6(11.8)	-	1(2.0)		4.18(0.79) <sub>ab</sub>	
	어머니	대졸(60)	18(30.0)	27(45.0)	16(10.0)	4(6.7)	5(8.3)	20.74	3.82(1.19) <sub>a</sub>	5.04++
		고졸(241)	87(36.1)	104(43.2)	31(12.9)	10(4.2)	9(3.7)		4.04(1.00) <sub>a</sub>	
중졸(111)		57(51.4)	42(37.8)	8(7.2)	3(2.7)	1(0.9)	4.36(0.81) <sub>b</sub>			
국졸(70)		25(35.7)	36(51.4)	7(10.0)	1(1.4)	1(1.4)	4.19(0.79) <sub>ab</sub>			
월 가 계 소 득	200만원이상(111)	47(42.3)	41(36.9)	11(9.9)	5(4.5)	7(6.3)	13.83	4.05(1.13)	0.32	
	150-200(132)	48(36.4)	59(44.7)	16(12.1)	6(4.5)	3(2.3)		4.08(0.93)		
	100-150(150)	57(38.0)	69(46.0)	16(10.7)	4(2.7)	4(2.7)		4.14(0.91)		
	70-100(53)	18(34.0)	29(54.7)	5(9.4)	1(1.9)	-		4.21(0.69)		
	70만원 미만(36)	17(47.2)	11(30.6)	4(11.1)	2(5.6)	2(5.6)		4.08(1.16)		
가족 규모	3인 이하(50)	22(44.0)	22(44.0)	5(10.0)	1(2.0)	-	10.57	4.30(0.74)	3.16+	
	4-5인(360)	133(36.9)	153(42.5)	45(12.5)	14(3.9)	15(4.2)		4.04(1.01)		
	6인 이상(72)	32(44.4)	34(47.2)	2(2.8)	3(4.2)	1(1.3)		4.29(0.83)		
총 계(482)		187(38.8)	209(43.4)	52(10.8)	18(3.7)	16(3.3)		4.11(0.97)		

1)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 0.01 \*\*\* P < 0.001)

2) + 는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Scheffé-test 결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집단들은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4〉 '식생활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응답

반응		식생활 향상을 위한 지식과 원리	실질적인 식생활 기능	식생활 관련 문제의 해결	계	
변인(N)	빈도					N(%)
성별	남(273)	57(20.9)	88(32.2)	128(46.9)	4.82	
	여(209)	42(20.1)	50(23.5)	117(56.1)		
학교 소재지	서울(329)	70(21.3)	99(30.1)	160(48.6)	8.44	
	지방도시(98)	21(21.4)	30(30.6)	47(48.0)		
	군읍면(55)	8(14.5)	9(16.4)	38(69.1)		
학교 형태	남중(93)	20(21.5)	42(45.2)	31(33.3)	18.84***	
	여중(87)	15(17.2)	24(27.6)	48(55.2)		
	남녀공학(302)	64(21.2)	72(23.8)	166(55.0)		
		남(180)	37(20.6)	46(25.6)		97(53.9)
	여(122)	27(22.1)	26(21.3)	69(56.6)		
부모의 교육 수준	아 버 지	대졸(133)	33(24.8)	52(39.1)	48(36.1)	18.85**
		고졸(235)	48(20.4)	59(25.1)	128(54.5)	
		중졸(63)	12(19.0)	14(22.2)	37(58.7)	
		국졸(51)	6(11.8)	13(25.5)	32(62.7)	
	어 머 니	대졸(60)	11(18.3)	28(46.7)	21(35.0)	13.59*
		고졸(241)	55(22.8)	64(26.6)	122(50.6)	
		중졸(111)	22(19.8)	27(24.3)	62(55.9)	
		국졸(70)	11(15.7)	19(27.1)	40(57.1)	
어머니 직업	유(194)	43(22.2)	49(25.3)	102(52.5)	1.90	
	무(288)	56(19.4)	89(30.9)	143(49.7)		
월 가 계 소 득	200만원이상(111)	22(19.8)	37(33.3)	52(46.8)	6.96	
	150-200(132)	24(18.2)	39(29.5)	69(52.3)		
	100-150(150)	37(24.7)	41(27.3)	72(48.0)		
	70-100(53)	8(15.7)	15(28.3)	30(56.0)		
	70만원 미만(36)	8(22.2)	6(16.7)	22(61.1)		
가족 규모	3인 이하(50)	8(16.0)	12(24.0)	30(60.0)	3.10	
	4-5인(360)	77(21.4)	108(30.0)	175(48.6)		
	6인 이상(72)	14(19.4)	18(25.0)	40(55.6)		
총 계 (482)		99(20.5)	138(28.6)	245(50.8)		

※)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 '식생활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재미있었는가'에 대한 응답

변인(N)		반응(점수)					$\chi^2$	계		
		매우재미 있었다 (5)	재미있는 편이었다 (4)	그저 그렇다 (3)	재미없는 편이었다 (2)	전혀재미 없었다 (1)		M(S.D)	F또는t <sup>2)</sup>	
빈도		N(%)	N(%)	N(%)	N(%)	N(%)				
성별	남(273)	92(33.7)	96(35.2)	56(20.5)	14(5.1)	15(5.5)	10.24*	3.86(1.11)	-2.77	
	여(209)	78(37.3)	89(42.6)	33(15.8)	6(2.9)	3(1.4)		4.12(0.88)		
학교 소재지	서울(329)	121(36.8)	125(38.0)	60(18.2)	12(3.6)	11(3.3)	11.77	4.01(1.00)	0.77	
	지방도시(98)	33(33.7)	36(36.7)	21(21.4)	2(2.0)	6(6.1)		3.90(1.09)		
	군읍면(55)	16(29.1)	24(43.6)	8(14.5)	6(10.9)	1(1.8)		3.87(1.02)		
학교 형태	남중(93)	35(37.6)	33(35.5)	16(17.2)	3(3.2)	6(6.5)	4.58	3.95(1.13)	0.37	
	여중(87)	33(37.9)	35(40.2)	13(14.9)	3(3.4)	3(3.4)		4.06(0.99)		
	남녀공학(302)	102(33.8)	117(38.7)	60(19.9)	14(4.6)	9(3.0)		3.96(1.00)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54(40.6)	48(36.1)	19(14.3)	5(3.8)	7(5.3)	16.55	4.03(1.09)	1.02
		고졸(235)	81(34.5)	91(38.7)	46(19.6)	7(3.0)	10(4.3)		3.96(1.02)	
		중졸(63)	20(31.7)	30(47.6)	10(15.9)	3(4.8)	-		4.06(0.82)	
		국졸(51)	15(29.4)	16(31.4)	14(27.5)	5(9.8)	1(2.0)		3.76(1.05)	
	어머니	대졸(60)	31(51.7)	16(26.7)	4(6.7)	4(6.7)	5(8.3)	24.00*	4.07(1.27)	0.40
		고졸(241)	80(33.2)	97(40.2)	48(19.9)	6(2.5)	10(4.1)		3.96(1.00)	
		중졸(111)	37(33.3)	47(42.3)	20(18.0)	5(4.5)	2(1.8)		4.01(0.93)	
		국졸(70)	22(31.4)	25(35.7)	17(24.3)	5(7.1)	1(1.4)		3.89(0.99)	
월 가 계 소 득	200만원이상(111)	49(44.1)	33(29.7)	18(16.2)	6(5.4)	5(4.5)	14.70	4.04(1.11)	0.45	
	150-200(132)	48(36.4)	50(37.9)	24(18.2)	4(3.0)	6(4.5)		3.98(1.04)		
	100-150(150)	48(32.0)	64(42.7)	29(19.3)	6(4.0)	3(2.0)		3.99(0.93)		
	70-100(53)	14(26.4)	26(49.1)	8(15.1)	3(5.7)	2(3.8)		3.89(0.99)		
	70만원 미만(36)	11(30.6)	12(33.3)	10(27.8)	1(2.8)	2(5.6)		3.81(1.09)		
가족 규모	3인 이하(50)	14(28.0)	22(44.0)	11(22.0)	3(6.0)	-	6.57	3.94(0.87)	0.14	
	4-5인(360)	129(35.8)	134(37.2)	67(18.6)	16(4.4)	14(3.9)		3.97(1.04)		
	6인 이상(72)	27(37.5)	29(40.3)	11(15.3)	1(1.4)	4(5.6)		4.03(1.05)		
총 계(482)		170(35.3)	185(38.4)	89(18.5)	20(4.1)	18(3.7)		3.97(1.02)		

1)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2) + 는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Scheffé-test 결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집단들은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6〉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었는가'에 대한 응답

반응(점수)		매우	도움이	그저	도움이	전혀	$\chi^2$	계		
		도움이 되었다 (5)	된 편이다 (4)	그렇다 (3)	되지않은 편이다 (2)	도움이 되지않았다 (1)				
변인(N)		N(%)	N(%)	N(%)	N(%)	N(%)		M(S.D)	F또는 <sup>2)</sup>	
성별	남(273)	48(17.6)	108(39.6)	70(25.6)	33(12.1)	14(5.1)	12.92*	3.52(1.08)	-2.93++	
	여(209)	44(21.1)	92(44.0)	59(28.2)	12(5.7)	2(1.0)		3.79(0.88)		
학교 소재지	서울(329)	61(18.5)	128(38.5)	93(28.3)	32(9.7)	15(4.6)	10.41	3.57(1.04)	2.24	
	지방도시(98)	22(22.4)	42(42.9)	25(25.5)	9(9.2)	-		3.79(0.90)		
	군읍면(55)	9(16.4)	30(54.5)	7(20.0)	4(7.3)	1(1.8)		3.76(0.88)		
학교 형태	남중(93)	20(21.5)	24(25.8)	24(25.8)	14(15.1)	11(11.8)	41.95***	3.30(1.29)	6.74++	
	여중(87)	14(16.1)	38(43.7)	30(34.5)	3(3.4)	2(2.3)		3.68(0.87)		
	남녀공학(302)	58(19.1)	138(45.7)	75(24.8)	28(9.3)	3(1.0)		3.73(0.91)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24(18.0)	50(37.6)	34(25.6)	17(12.8)	8(6.0)	11.86	3.49(1.11)	1.73
		고졸(235)	44(18.7)	99(42.1)	67(28.5)	18(7.7)	7(3.0)		3.66(0.97)	
		중졸(63)	16(25.4)	25(39.7)	16(25.4)	6(9.5)	-		3.81(0.93)	
		국졸(51)	8(15.7)	26(51.0)	12(23.5)	4(7.8)	1(2.0)		3.71(0.90)	
	어머니	대졸(60)	13(21.7)	23(38.3)	11(18.3)	6(10.0)	7(11.7)	24.59*	3.48(1.27)	2.10
		고졸(241)	44(18.3)	90(37.3)	74(30.7)	25(10.4)	8(3.3)		3.57(1.01)	
		중졸(111)	22(19.8)	52(46.8)	27(24.3)	9(8.1)	1(0.9)		3.77(0.89)	
		국졸(70)	13(18.6)	35(50.0)	17(24.3)	5(7.1)	-		3.80(0.83)	
월 가 계 소 득	200만원이상(111)	24(21.6)	46(41.4)	28(25.2)	8(7.2)	5(4.5)	15.36	3.68(1.04)	2.08	
	150-200(132)	24(18.2)	55(41.7)	33(25.0)	15(11.4)	5(3.8)		3.59(1.03)		
	100-150(150)	23(15.3)	59(39.3)	48(32.0)	16(10.7)	4(2.7)		3.54(0.97)		
	70-100(53)	8(15.2)	25(47.2)	14(26.4)	5(9.4)	1(1.9)		3.64(0.92)		
	70만원 미만(36)	13(36.2)	15(41.7)	6(16.7)	1(2.8)	1(2.8)		4.06(0.95)		
가족 규모	3인 이하(50)	12(24.0)	27(54.0)	7(14.0)	3(6.0)	1(2.0)	17.18*	3.92(0.90)	5.85++	
	4-5인(360)	65(18.1)	137(38.1)	103(28.6)	40(11.1)	15(4.2)		3.55(1.04)		
	6인 이상(72)	15(20.8)	36(50.0)	19(26.4)	2(2.8)	-		3.89(0.76)		
총 계(482)		92(19.1)	200(41.5)	129(26.8)	45(9.3)	16(3.3)		3.64(1.00)		

1)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2) + 는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Scheffe-test 결과 같은 분자를 포함한 집단들은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7> '식생활단원을 배운 후 자신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에 대한 응답

반응(점수)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다 (5)	관심이 생긴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관심의 변화가 없는편이다 (2)	관심의 변화가 전혀없었다 (1)	$\chi^2$	계		
변인(N)	빈도	N(%)	N(%)	N(%)	N(%)	N(%)		M(S.D)	F또는t <sup>2)</sup>	
성별	남(273)	39(14.3)	64(23.4)	77(28.2)	42(15.4)	51(18.7)	16.77**	2.99(1.31)	-2.21+	
	여(209)	29(13.9)	55(26.3)	74(35.4)	38(18.2)	13(6.2)		3.23(1.10)		
학교 소재지	서울(329)	41(12.5)	78(23.7)	106(32.2)	54(16.4)	50(15.2)	12.32	3.02(1.23)	2.23	
	지방도시(98)	21(21.4)	22(22.4)	26(26.5)	18(18.4)	11(11.2)		3.24(1.29)		
	군읍면(55)	6(10.5)	19(34.5)	19(34.5)	8(14.5)	3(5.5)		3.31(1.03)		
학교 형태	남중(93)	9(9.7)	18(19.4)	26(28.0)	12(12.9)	28(30.1)	37.58***	2.66(1.35) <sub>a</sub>	9.52+++	
	여중(87)	7(8.0)	19(21.8)	34(39.1)	20(23.0)	7(8.0)		2.99(1.05) <sub>ab</sub>		
	남녀공학(302)	52(17.2)	82(27.2)	91(30.1)	48(15.9)	29(9.6)		3.26(1.20) <sub>c</sub>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	대졸(133)	20(15.0)	30(22.6)	37(27.8)	18(13.5)	28(21.1)	15.43	2.97(1.35)	0.67
		고졸(235)	35(14.9)	60(25.5)	72(30.6)	41(17.4)	27(11.5)		3.15(1.21)	
		중졸(63)	6(9.5)	15(23.8)	27(42.9)	11(17.5)	4(6.3)		3.13(1.02)	
		국졸(51)	7(13.7)	14(27.5)	15(29.4)	10(19.6)	5(9.8)		3.16(1.19)	
	어머니	대졸(60)	7(11.7)	14(23.3)	15(25.0)	8(13.3)	16(26.7)	23.50*	2.80(1.38)	2.09
		고졸(241)	38(15.8)	55(22.8)	69(28.6)	43(17.8)	36(14.9)		3.07(1.28)	
		중졸(111)	15(13.5)	26(23.4)	44(39.6)	19(17.1)	7(6.3)		3.21(1.08)	
		국졸(70)	8(11.4)	24(34.3)	23(32.9)	10(14.3)	5(7.1)		3.29(1.08)	
월 가 계 소 득	200만원이상(111)	20(18.0)	25(22.5)	32(28.8)	9(8.1)	25(22.5)	32.12**	3.05(1.39)	0.95	
	150-200(132)	19(14.4)	23(17.4)	48(36.4)	26(19.7)	16(12.1)		3.02(1.20)		
	100-150(150)	19(12.7)	48(32.0)	41(27.3)	30(20.0)	12(8.0)		3.21(1.14)		
	70-100(53)	3(5.7)	13(24.5)	21(39.6)	9(17.0)	7(13.2)		2.92(1.09)		
	70만원 미만(36)	7(19.4)	10(27.8)	9(25.0)	6(16.7)	4(11.1)		3.28(1.28)		
가족 규모	3인 이하(50)	7(14.0)	16(32.0)	12(24.0)	9(18.0)	6(12.0)	8.55	3.18(1.24)	0.88	
	4-5인(360)	53(14.7)	79(21.9)	114(31.7)	63(17.5)	51(4.2)		3.06(1.25)		
	6인 이상(72)	8(11.1)	24(33.3)	25(34.7)	8(11.1)	7(9.7)		3.25(1.11)		
총 계(482)		68(14.1)	119(24.7)	151(31.3)	80(16.6)	64(13.3)		3.10(1.23)		

1) \* 는 각 집단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2) + 는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Scheffé-test 결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집단들은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8〉 학교 소재지에 따른 남녀 학생의 각 항목 점수 차이

항 목		남학생				여학생			
		서울 (191)	지방도시 (51)	군읍면 (31)	계 (273)	서울 (138)	지방도시 (47)	군읍면 (24)	계 (209)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48	3.51	3.81	3.52	3.63	3.83	4.00	3.72
	남녀 공수 필요성	3.79	3.69	4.10	3.80***	4.49	4.62	4.38	4.50
식생활 단위	식생활 단위에 대한 흥미도	3.94	3.59	3.84	3.86	4.11	4.23	3.92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3.51	3.49	3.65	3.52**	3.65 <sub>a</sub>	4.11 <sub>b</sub>	3.92 <sub>b</sub>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정도	2.96	2.98	3.19	2.99*	3.09	3.53	3.46	3.23

\*: 여학생 집단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밑줄친 점수 우측의 영문자는 Scheffé-test 결과 각 집단 내 하위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낸다.  
(단, 동일 문자 포함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

〈표 9〉 학교 형태에 따른 남녀 학생의 각 항목 점수 차이

항 목		남학생			여학생		
		남중	남녀공학	계	여중	남녀공학	계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24++	3.67	3.52	3.52++	3.86	3.72
	남녀 공수 필요성	3.53++	3.94	3.80***	4.51	4.50	4.50
식생활 단위	식생활 단위에 대한 흥미도	3.95	3.83	3.86	4.06	4.16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정도	3.30+	3.64	3.52**	3.68	3.86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 정도	2.66++	3.17	2.99*	2.99++	3.41	3.23

\*: 여학생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같은 줄의 밑줄친 두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0〉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남녀 학생의 각 항목 점수 차이

항 목		남학생					여학생				
		성별/아버지 교육수준	대졸 (87)	고졸 (127)	중졸 (32)	국졸 (27)	계 (273)	대졸 (46)	고졸 (108)	중졸 (31)	국졸 (24)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38	3.54	3.91	3.48	3.52	3.50	3.78	3.77	3.79	3.72
	남녀 공수 필요성	3.70 <sub>a</sub>	3.69 <sub>a</sub>	4.31 <sub>b</sub>	4.07 <sub>ab</sub>	3.80**	4.43	4.54	4.65	4.29	4.50
식생활 단원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3.94	3.83	3.97	3.67	3.86	4.20	4.12	4.16	3.88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3.37	3.57	3.66	3.67	3.52**	3.72	3.77	3.97	3.75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정도	2.89	3.01	3.13	3.11	2.99*	3.13	3.31	3.13	3.21	3.23
항 목		남학생					여학생				
		성별/어머니의 교육수준	대 졸 (43)	고졸 (139)	중졸 (53)	국졸 (38)	계 (273)	대졸 (17)	고졸 (102)	중졸 (58)	국졸 (32)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16 <sub>a</sub>	3.52 <sub>b</sub>	3.68 <sub>b</sub>	3.74 <sub>b</sub>	3.52	3.35	3.63	3.90	3.88	3.72
	남녀 공수 필요성	3.58	3.70	4.11	4.00	3.80***	4.41	4.50	4.59	4.41	4.50
식생활 단원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3.95	3.87	3.89	3.71	3.86	4.35	4.08	4.12	4.09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3.30	3.50	3.75	3.53	3.52**	3.94	3.66	3.78	4.13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정도	2.56	3.02	3.17	3.13	2.99*	3.41	3.13	3.24	3.47	3.23

\*: 여학생 집단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유의수준: \* P < 0.05 \*\* P < 0.01 \*\*\* P < 0.001)

- 밑줄친 점수 우측의 영문자는 Scheffé-test 결과 각 집단 내 하위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낸다.  
(단, 동일 문자 포함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

〈표 11〉 월 가계 소득에 따른 남녀 학생의 각 항목 점수 차이

항 목		남학생						여학생					
		성별/월가계소득	200만원 이상 (65)	150 -200 (80)	100 -150 (85)	70 -100 (28)	70만원 이하 (15)	계 (273)	200만원 이상 (46)	150 -200 (52)	100 -150 (65)	70 -100 (25)	70만원 이하 (21)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32	3.54	3.56	3.75	3.67	3.52	3.83	3.56	3.77	3.52	3.95	3.72
	남녀 공수 필요성	3.75	3.80	3.82	3.96	3.60	3.80***	4.46	4.52	4.55	4.48	4.43	4.50
식생활 단원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3.98	3.94	3.85	3.79	3.20	3.86	4.11	4.06	4.17	4.00	4.24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3.57	3.54	3.41	3.68	3.60	3.52**	3.85 <sub>a</sub>	3.67 <sub>a</sub>	3.71 <sub>a</sub>	3.60 <sub>b</sub>	4.38 <sub>b</sub>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정도	2.92	2.93	3.21	2.82	2.73	2.99*	3.24	3.17	3.22	3.04	3.67	3.23

\*: 여학생 집단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유의수준: \* P < 0.05 \*\* P < 0.01 \*\*\* P < 0.001)

- 밑줄친 점수 우측의 영문자는 Scheffé-test 결과 각 집단 내 하위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낸다.  
(단, 동일 문자 포함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

〈표 12〉 가족 규모에 따른 남녀 학생의 각 항목 점수 차이

항 목		남학생				여학생			
		3인 이하 (33)	4-5인 (212)	6인 이상 (28)	계 (273)	3인 이하 (17)	4-5인 (148)	6인 이상 (44)	계 (209)
가정 과목	가정과목의 중요도	3.70	3.47	3.75	3.52	3.82	3.72	3.66	3.72
	남녀 공수 필요성	4.06	3.74	4.00	3.80***	4.76	4.18	4.48	4.50
식생활 단원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3.70	3.90	3.82	3.86	4.41	4.07	4.16	4.11
	실제 생활에의 도움 정도	3.76	3.44	3.86	3.52**	4.24	4.70	4.91	3.78
	식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정도	2.97	3.00	2.96	2.99*	3.59	3.14	3.43	3.23

\*: 여학생 집단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유의수준: \* P < 0.05 \*\* P < 0.01 \*\*\* P < 0.001)